



## 중국

### Top Picks 및 관심종목

CATL(300750.CH)

TP 579.20 CNY | CP 393.55 CNY

\*CP 2026년 6월 29일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6월 30일 | Global Equity

# 중국 이차전지

##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업화의 시작

### CATL과 BYD가 주도 중인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

최근 중국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및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CATL은 2025년 4월 전기차용 나트륨이온 배터리 브랜드 'Naxtra'를 출시했으며, 올해 1~2만 대의 전기차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같은 달 ESS 전문기업 HyperStrong과 3년간 총 60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실증을 완료한 나트륨이온 ESS 'TENER Sodium'을 공개했다. TENER Sodium은 올해 9월 중국에서 첫 출하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누적 1GWh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출하는 2027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YD는 ESS를 중심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BYD는 2025년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장쑤성 쉬저우시에 30GWh 규모의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고 향후 생산 능력이 50GWh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ESS 산업에 활발히 사용될 나트륨이온 배터리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최대 성장 시장은 ESS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긴 사이클 수명과 높은 안전성, 우수한 저온 성능, 높은 출력 특성이 중요한 분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초기 상업화는 ESS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저가형 전기차, 자동차 시동 배터리, 전동이륜차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업계는 2030년 글로벌 나트륨이온 배터리 설치 수요가 약 406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0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시장 침투율은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현재 한계점은 에너지 밀도와 일부 핵심 소재 공급망

단기간 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큰 제약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낮은 에너지 밀도이며, 하드카본 음극재와 프러시안블루 양극재 등 핵심 소재 공급망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리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용 분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CATL과 BYD가 주도 중인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

### CATL 전기차용 나트륨이온배터리 출시

### 2026년 TENER Sodium 1GWh 출하 목표

### BYD 30GWh 규모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기지 건설

최근 중국의 나트륨이온 배터리는 실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및 양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CATL은 2025년 4월 전기차용 나트륨이온 배터리 브랜드 'Naxtra'를 출시했으며, 올해 1~2만 대의 전기차에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같은 달 ESS 전문기업 HyperStrong과 3년간 총 60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실증을 완료한 나트륨이온 ESS 'TENER Sodium'을 공개했다. TENER Sodium은 세계 최초의 Bi-DC 양방향 전압 제어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양복효율(RTE)을 약 2% 개선했으며, 25°C 환경에서 1만5,000회 충·방전 후에도 SOH 70%를 유지해 약 25~30년의 수명을 제공한다. TENER Sodium은 올해 9월 중국에서 첫 출하를 시작해 2026년 말까지 누적 1GWh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출하는 2027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YD는 ESS를 중심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고안정성 폴리아니온 소재와 전기화학 시스템 혁신을 통해 나트륨 석출과 고온 환경에서의 성능 저하를 개선했으며, 2025년에는 MW급 폴리아니온 기반 ESS 실증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현재 3세대 폴리아니온 기반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ESS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제조원가를 Wh 당 0.3위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 나트륨이온 배터리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장쑤성 쉬저우시에 30GWh 규모의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생산 능력이 50GWh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Seagull 등 보급형 도심형 전기차를 중심으로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Hua Yang, Transimage, Chaowei Power 등 업체들도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Hua Yang은 셀-팩-ESS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2026년 생산 능력을 5GWh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Transimage는 연간 4.5GWh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전기이륜차 제조사와 성능 검증을 진행 중이다. Chaowei Power는 10~15GWh 규모의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야디(Yadea), 아이마(Aima), 타이링(Tailg) 등 주요 전기자전거 업체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ESS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도표 1. 중국 나트륨이온 배터리 업체 현황

기업명	티커	시총 (조원)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 및 계획	주요 고객/업력사
CATL	300750 CH	396.7	-Naxtra(차량용)와 TENER Sodium(ESS용) 출시 -2026년 TENER Sodium 1GWh 출하 목표 -푸지엔성에 40GWh 규모 생산라인 구축 계획	-GAC Aion UT, Changan Oshan 520, FAW Jiefang 24V heavy-duty truck, JAC Logistics Vehicles 등 차량에 나트륨이온 배터리 탑재 추진 중 -HyperStrong과 3년간 총 60GWh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BYD	1211 HK	52.6	-취저우 기지에 30GWh 규모 생산라인 구축	-2025년 MW급 폴리머 기반 나트륨이온 배터리 ESS 실증 프로젝트 완료 -자사 전기차에 나트륨이온 배터리 탑재 계획
EVE Energy	300014 CH	32.0	-2026년 나트륨이온 배터리 양산 시작 -2027년까지 생산 Capa 2GWh 구축 계획	-2025년 9월 후베이성 징먼에서 나트륨이온 ESS 전력망 연계
Hua Yang	600348 CH	6.2	-나트륨이온 배터리 셀 1GWh, 배터리 팩 1GWh, ESS 시스템 1GWh 규모의 생산 라인 보유 -2026년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생산 Capa 5GWh까지 확대 계획	-중국 주요 ESS 기업과 광산 고객사에 대량 공급 -자회사인 화나신병을 통해 CATL의 특허 기술 사용권 확보
Pylon Technologies	688063 CH	3.0	-	-2025년 9월 쉬파이파워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 1GWh 이상의 배터리 제품을 공급할 것
Transimage	002866 CH	1.7	-4.5GWh 규모 생산라인 구축. -추가로 5.5GWh 증설 계획	-이륜차 제조사에 샘플을 공급해 성능 검증을 진행 중 -장쑤성 가오유에서 2.5MW/5MWh 규모의 ESS 실증 프로젝트 구축
Veken-tech	600152 CH	1.2	-난창 기지에 2GWh 규모 생산라인 구축	-다수 시범 프로젝트에 적용 중
Chaowei Power	0951 HK	0.2	-안후이성 기지에 10~15GWh 규모 생산라인 구축 -2개 생산라인이 가동 중, 8개 생산라인 신규 설치 및 테스트 중	-Yadea, Aima 등 중국 주요 전기자전거 업체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나트륨이온 배터리 ESS 분야 상용화 추진 중
HiNa Battery	-	-	-	-HuaYang과 협력해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동 개발

자료: 언론, 각사 공시, 하나증권

### ESS 산업에 활발히 사용될 나트륨이온 배터리

초기 상업화는 ESS  
향후 적용 범위 확대

향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최대 성장 시장은 ESS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SS는 긴 사이클 수명과 높은 안전성, 우수한 저온 성능, 높은 출력 특성이 중요한 분야로,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기술적 강점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에 따라 초기 상업화는 ESS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저가형 전기차, 자동차 시동 배터리, 전동이륜차 등으로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업계는 2030년 글로벌 나트륨이온 배터리 설치 수요가 약 406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2030년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시장 침투율은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CATL의 2026년 나트륨이온 배터리 출하 목표(1GWh)의 약 400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편, CATL 경영진은 저가형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 시장의 30~40%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 30~40% 대체

### 현재 한계점은 에너지 밀도와 일부 핵심 소재 공급망

단기간 내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큰 제약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낮은 에너지 밀도이며, 하드카본 음극재와 프러시안블루 양극재 등 핵심 소재 공급망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또한 리튬 가격이 하락할 경우, 나트륨이온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일부 약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용 분야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예지)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송예지)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